

일상 속에 스민 우리의 고유심성

의·식·주 생활속의 의식구조 밝힌 「재미있는 ...」 세권

파이프를 입에 물고 엮은 옷음이 안경너머 가느다란 실눈 사이로 번지는 프로필로 친숙한 李圭泰씨(조선일보 상무이사. 58)가 색다른 이야기모음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그가 늘 상 다뤘었던 '한국인의 의식구조' 탐구의 연장에서 서서 이번에는 의식주 문화에 숨어 있는 한국인의 심성을 「우리의 옷이야기」 「우리의 음식이야기」 「우리의 집이야기」(기린원)의 세권으로 엮어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풍속도를 그려내고 있다.

실오라기 하나에도 신앙적인 경건함이

우리옷은 우비처럼 목이 들어갈 구멍만 뚫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옷 이야기」는 그 기록을 고문헌에서 밝히면서, 우리옷이 북방 기마민족이나 중국의 영향에 따라 옷깃의 방향 따위들이 바뀌었음을 알린다. 이미 삼한시대부터 뽕 치고 누에를 길러 옷을 짜 입었다는 기록도 전하는데 양잠할 때 방아를 찧거나 곡성을 내거나 시어머니한테 꾸지람 들은 머느리의 출입을 금하는 등 터부사행이 많았다. 한오라기 실을 생산기 위해서도 신앙적인 경건함을 지닌 때문이다. 명주 말고 삼과 모시, 무명이 있어 백의민족의 근원이 됐음도 밝히진다.

오행설에 근거하여 동방색인 청색을 숭상했는데, 서민은 풋감즙으로 물들인 감물빛의 복색이 많았다. 연지의 붉은빛과 쪽빛, 회나무꽃에서 만드는 초록빛과 뽕나무 즐기심으로 베이지색까지 만들었다 한다. 옷 색깔로 계급과 권위를 드러냈고 옷에 영력이 스민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는 살갓에 닿는 옷을 물질 이상,

생명체의 연장이며 인격체의 연장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양복이 별기군의 제복이었다든가, 신여성을 상징했던 '비로드치마' 등 외래문화가 밀려들기 시작할 무렵의 의복 풍속의 변화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또 우리 옷엔 주머니가 없는 데 비해 포켓이 많은 양복, 중국의 진족과 비교되는 한국의 버선처럼 문화개념에 대한 차이도 흥미롭다. 우리 한복의 치마에서 '싸는' 문화의 특징을 발견한다든가, 한복의 특색인 혈령함을 '여유구조'로 파악하는 등 저자 특유의 재치 있는 분석이 돋보인다.

'푸짐하다'로 표현되는 음식문화의 원형

먹거리 생활 역시 우리의 심층문화에 깊숙이 맞닿아 있다. 「우리의 음식이야기」 편에서는 '푸짐하다'는 말에서 그 인정의 넉넉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네 음식문화의 원형을 드러내 보인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씩 먹는 서구·중국식의 '시간계열형'과는 달리 모든 음식이 한꺼번에 차려지는 '공간전개형'이라는 한국식의 특색은 보완적 관계의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음식문화의 또다른 원형으로 제시된다.

개인전용의 숟가락 밥·국그릇이 있는 '식



기개인주의'도 독특하고, 세계 유일의 '朝食문화'가 새벽부터 들에서 일해야 하므로 아침밥의 비중이 커진 데서 연유한다는 해석도 흥미롭다.

한민족이 즐겼던 소주는 고려말에 이미 보편화됐음이 「고려사」에서 나타났고, 「경국대전」엔 그 해독성을 경계하여 약용 외에는 소주를 못 마시도록 법으로 금하기까지 했다. 한잔으로 여러 사람이 술을 나눠마시는 '대표문화'의 해설도 공감을 자아낸다. 또한 병사의 군량에 이용했던 담복장이나 상류사회의 풍류음식으로 선망받던 뽕어국 등 음식마다 담겨 있는 민속과 터부, 내력과 일화들이 해박한 지식으로 마침없이 묘사돼 있다.

'家神'이 보호하는 우리네 주거생활

유별나게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집'은 그만큼 절대적인 귀소본능의 원형으로 자리한다. 「우리의 집이야기」 편에서

저자가 한국인의 남다른 고향감각 발달을 '定住性'의 주거문화로 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 점에서 정주성의 전통의식에 반하는 오늘날의 프리미엄 약품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신랄하다. 한편으로 집의 구조에 대해선 '五實五虛'로 원칙을 삼았고, 담벽을 쌓아 성숙한 가족의식을 이뤘던 점 등 주거문화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섬세한 심성이 다양하게 펼쳐져 보인다.

한국의 집에는 구석마다 家神이 자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家神을 위해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山과 水와 向의 삼위일체를 찾는 '풍수'를 보았는데, 그것이 이미 신라시대 초기부터 적용됐음도 알 수 있다. 전통한옥의 각 구조물에서도 한민족의 심성이 투영돼 있음을 밝히는 해석도 돋보이는데, 지붕에서 낙숫물이 떨어지게 함은 '비'라는 자연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풀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짙으로 지붕을 이어 쾌적함을 얻었던 초가지붕, 강한 빛을 완충시키는 장지문의 한지, 더위와 추위를 모두 수용하는 토벽의 과학성 등이 모두 민족이 심성구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한국문화의 대표격인 온돌방은 '축각 문화생리'가 발달한 한국인의 습성과 '앉는' 문화에 연결돼 있음으로 파악한다.

이 시리즈는 동서고금, 시공을 넘어서 해박한 지식으로 생활구석에 스며든 우리의 문화를 활달히 풀어헤친 점에서 저자의 독특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책이다.

—김지원 기자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 292/4546, 294/9639 Fax : 294/6443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



●출판기획 · 집필대행 · 번역 · 단행본 · 잡지 · 사보편집 및 제작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그동안 출판기획 및 출판디자인 전문집단으로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아온 여름새벽이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여름새벽에서는 **출판기획 · 집필대행 · 번역**에서부터 **단행본 · 잡지 · 사보의 편집 및 제작, 표지 · 본문 · 출판광고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전반에 걸쳐서 전문적인 두뇌와 감각을 갖고 대항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읽기 편하고 보기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4-4 용우빌딩302호 전화, 268-2327-8 Fax, 268-2329